

##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오픈디자인

개방성과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디자인'에 관한 책이 나왔다. 안그래픽스가 최근 내놓은 '오픈 디자인'은 저작권이 없는, 누구도 독점하지 않는 디자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문체는 바른바탕을 사용했는데, 이 서체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서체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바른바탕외에도 아리따돋움, 아리따부리, 노토산스, 나눔바른고딕 등 공개된 서체를 사용해 제작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출판사 | 안그래픽스 인쇄 | 한영문화사 유통 | 배수현 김현아  
 엮음 | 바스 판 아벌, 루카스 에버르스, 로얼 클라선, 피터 트록슬러

이 책은 오픈 디자인 개념을 알리고 이끄는 크리에이티브커먼즈네덜란드와 네덜란드의 디자인 플랫폼 프렘셀라, 사회 혁신을 위한 창작 기술 개발 집단 바그소사이어티,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 하는 여러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회운동가가 쓴 글을 엮은 책이다. 이들은 세상을 바꾼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사회에서 개인과 권력의 균형추를 올바르게 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유'라고 이야기한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식재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공유'의 경제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책은 앞으로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길로 개방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디자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과 사례 등을 통해 오픈 디자인의 가능성과 그것이 가져다줄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 오픈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오픈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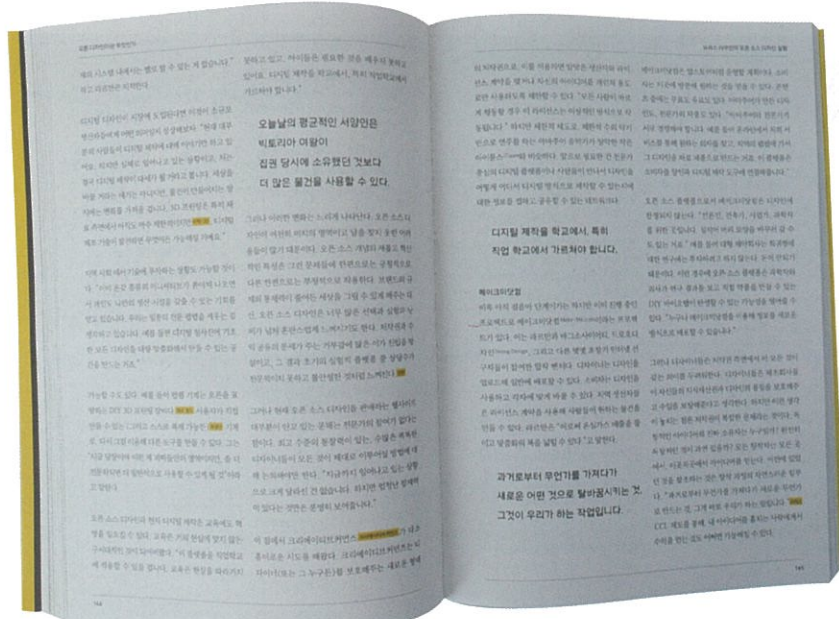
의 개념을 살피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픈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20세기 말 비영리단체 오픈디자인재단의 설립과 함께 처음 등장했다. 오픈디자인재단은 오픈 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내리는 대신 오픈 디자인이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란 창작자가 디자인의 자유로운 배포와 기록을 허락하고, 수정 및 2차 창작을 허용하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픈 디자인은 창작과 혁신으로 가는 길을 닦을 뿐 아니라 디자인의 근원적 문제를 일깨워준다. 다시 말해 독점하는 것이 아닌 공유와 개방을 통해 디자인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진화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를레인 스티커르는 서문에서 "오픈 디자인은 확산되고 있는 가용론 운동의 일환이다. 정보통신기술에 뿌리를 둔 오픈 디자인은 개인이 집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1인 공장이 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픈 디자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집단을 가용론자로, 오픈디자인에 두려움과 불신으로 반응하는 집단을 현실주의자라고 구분한다. 가용론자는 오픈 디자인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 참여하며, 스스로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며, 남과 북, 구세대와 신세대, 전통과 실험 등 상반되는 견해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전략을 꾀한다. 가용론자는 오픈 디자인의 핵심인 공유문화를 지지한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기여한다고, 공유된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반면 현실주의자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들어간 온갖 노고가 헛수고가 되어 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예컨대 책을 쓰는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해질 거라고, 누구나 그냥 가져다 복사해 버릴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작업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면 그걸 다른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이 책의 본문 서체는 바른비탕체로, 대한인쇄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서체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심지어 크리에이티브커먼즈조차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창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도록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또는 누구나 오픈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추어가 아름다운 디자인의 세계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탄식하면서 오픈 디자인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디자인 제품이 마구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픈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에 없던 가능성을 제공한다.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 스스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유통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 오픈 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

메뉴와 인테리어를 웹으로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요리법마저 공유하는 식당. 사장이나 요리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요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오픈 소스에 따라 요리하고,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요리법을 공유하는 식당. 웹사이트의 회원이면 누구나 작가가 되어 음식과 인테리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네덜란드 브라반트 지방의 한 직업학교는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은 웹에서 다운로드한 설계에 기초해 인테리어를

하고, 온라인 조리법에 따라 음식을 만들었다. 이 레스토랑은 MIT 미디어랩에서 시작된 인스트럭터블스(<http://instructable.com>)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른바 인스트럭터블스 레스토랑이다. 인스트럭터블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DIY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공유하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이외에도 세상을 바꾸는 오픈 디자인 이야기에서 50달러 의족, 개방형 표준, 디자인 스매시, 랩랩, 리디자인 미, 미디어랩 프라도, 사용자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셰어러블, 싱기버스, 아이디어와 오픈아이데오,

(언)리미티드디자인대회, (언)리미티드디자인대회, 오픈 리:소스 디자인, 오히나, 이미 만들어진 물건으로 디자인하기, 이케아해커: 램팬, 인스트럭터블스 레스토랑, 페어폰, 포노코, 프리칭, 협업 등 21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누구나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오픈 디자인

개방성과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디자인에 관한 이 책은 다양한 필자들이 참여해 만든 공유 재산이다. 이 책 자체가 특정한 저자가 자신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협업을 통한 공유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이에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크리에이티브커먼즈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3.0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누구든 이 책을 공유해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 및 변경할 수 있다.

첫째, 저자나 이용허락권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둘째,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셋째, 이 저작물을 변경,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크리에이티브커먼즈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3.0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